

지역 소식통

고창, 복분자 활성화 간담회

코로나19시대 대표적 면역·건강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고창 복분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울력이 펼쳐진다.

20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복분자 생산농가와 복분자 가공업체, 수매기관(농협)이 참여한 '복분자 활성화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복분자 활성화에 대한 지역 인력의 비상한 관심과 유기상 고창군수의 의지가 반영됐다.

또 복분자 관련 산업 집적화단지인 '복분자산업특구(아산·심원·부안면 일원 508만 8404㎡)'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에서 우수특구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복분자 고사원인 극복을 위한 국가기관의 연구와 재배기술 교육 등으로 재도약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 군민안전보험 시행

부안군(군수 권익현)이 이달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2021년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군민안전보험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 사고나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활안전 정책이다.

지난해 한 해에만 폭발화재, 농기계사고, 익사 등 9건의 사고에 5300여 만원이 지급돼 주민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했다. 대상지는 주민등록 전입 시 자동 가입되고 보험기간 중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보험금은 군이 일괄 납부하고 사고일로부터 3년 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최고 1000만원 한도 내에서(스몰론 사고 3000만원, 의사상자 1억 5000만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 등 16종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읍시, 주택용 태양광 설치비 70% 지원 추진

정읍시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청정에너지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그간 정부에서 시행해 온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왔으며 올해 약 1억5천만원을 투입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정부의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단독·공공주택에 태양광 또는 지열 등의 설비를

설치하고,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150가구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며, 태양광(3KW) 설치비는 502만원으로 이 중 70%를 한국에너지공단과 시에서 보조한다.

시는 3KW 태양광을 설치하면 한 달 전기요금에 6만원 가량이 나오는 가구는 약 4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기 사용량보다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가 더 많을 때는 남은 전기가 한전에 기록되어 있다가 전기 사용량이 많은 달 전기요금에서 차감된다.

사업 신청은 3월경 한국에너지공단

의 사업 공고 후에 참여 업체를 통해 선착순으로 공단에 신청하고, 5월 중 대상자를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 사업으로 전기료 절감 효과를 통한 경제적 도움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생활 편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는 자연력을 동력원으로 하기 때문에 연료비에 대한 부담이 없다"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 에너지 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단독·공공주택 139가구에 1억4,200여만원을 보조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장애인 가정 주거환경 무료 지원

장애인종합복지관-이원페스, 방역관리 업무협약 체결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남영희)은 지난 19일 방역 전문업체 이원페스(대표 양호석)와 장애인 가정의 방역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취약한 주거환경으로 감염병 우려가 있는 장애인 40가정에 대해 바이러스 걱정 없는 안심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이원페스는 해당 가정에 월 1회 해충박멸 등 체계적인 방역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무료 지원하게 된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이 장애인 가정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해충으로 인한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호석 대표는 "이렇게 협약을 맺고 장애인 가정에 정기적인 봉사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에게 쾌적한 주거환경과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봉사에 더 힘을 기울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남영희 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나눔을 실천하는 이원페스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연계를 통한 장애인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원페스는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방역 전문업체다.

현재 광주·김제·전주 지역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전문성과 성실함을 인정받아 지역사회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



지난 19일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이원페스는 장애인 가정의 방역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 방역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재무과 주요 업무 추진 보고회

부안군 재무과는 20일 군청 3층 중회의실에서 2021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회를 갖고 지난해 성과 분석과 함께 2021년 주요 업무 추진방향 및 향후 비전을 제시했다.

재무과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지방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 지방세 부과목표액 대비 106%를 초과한 지방세 부과액 689억원을 달성했다.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체납 징

수활동을 벌이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지방세 징수율도 전년 대비 1.3%p 상승했다.

초저금리 상황에서도 스마트한 자금관리로 자체 최대 이자수입액 26억원을 기록해 2년 연속(2019년도 25억원) 자체 최대 이자수입액을 달성했다.

특히 재무과는 지방세수 확충과 징수율 향상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면서 전북도 지방세정 종합실적 평가와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

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15일 이후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해 지역업체와 25건 30억원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공유재산 임대료 5800만원을 감면해 소상공인을 지원했다.

군청사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건립을 계획하고 국비 15억원, 도비 2억원을 확보했으며 주차장 예정 부지내 국유재산에 대해서도 교환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해 오는 2022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첫발을 내딛었다.

/부안=김석진 기자



천선미 고창 부군수는 지난 20일 국회 상임위 서영교 위원장을 방문하여 원전정책에 대해 건의 했다.

“원전인근 지자체 참여권 보장”

고창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원 개정안 신속통과 총력

천선미 고창부군수는 20일 국회 상임위 서영교 위원장을 방문하여 원전인근지역 지원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방사선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16개 원전인근 지자체 314만 국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보장하고 주민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이상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개정 법안과, 윤준병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지역지원 시설세 비상계획구역 - 30km 포함) 개정 법안은 고창군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현안사업이다.

고창군의 경우 원전소재지는 아니지만, 원전 최인접지역으로 항시 위험에 노출돼 있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관

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도 정부 지원금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천선미 부군수는 “원전인근지역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지원법안 신속 통과와 정부 원전정책에 대한 원전인근 지자체 참여권 보장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19일 유기상 고창군수를 비롯한 16개 원전 인근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원자력안전교부세 즉각 신설 등의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상시위협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즉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민원창구 ‘안심 가림막’ 설치

정읍시가 코로나19 지역확산 차단을 위해 시청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의 모든 민원창구에 안심 가림막을 설치한다.

시는 먼저 지난해 시청 민원실과 구내식당에 안심 가림막을 설치한 데 이어, 20일 현재 감곡면과 태인면, 영원면, 연지동을 비롯한 14개 읍면동 민원창구에 가림막을 세웠다.

남은 9개 읍면동의 민원창구에도 이달 안에 가림막을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민원창구는 장소 특성상 밀접 접촉이 많아 마스크 착용만으로는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적인 접촉을 최소화하고 비말(침방울)감염을 물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효과적

인 방법으로 안심 가림막을 설치했다. 이번 가림막 설치로 직접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민원 업무처리가 가능해져 시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코로나19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는 이외에도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출입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발열 체크, 손소독제 비치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해 가림막 설치를 결정하게 됐다”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주민과 직원의 안전을 위해 예방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